

#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경

‘디지털복합문화관’ 준공…내년 1~2월 시범운영·3월 개관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 디지털 재해석…문화체험·놀이 선사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이 지역 어린이들이 고대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문화관·어린이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조성사업으로,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고대 마한 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박물관은 684.8㎡ 규모로 조성됐으며, ‘안녕 마한, 우리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조성 중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놀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주요 전시 공간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됐다.

‘영산강과 마한 마을’은 굽이치는 강물 소리와 함께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고대인의 삶을 체험하고, ‘마한의 공방’은

옥 장신구와 대형 금동관 만들기 등 전통 기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경험한다. 또 ‘독널과 고분’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의 상징인 ‘독널’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크기의 독널 안에 누워보거나 원통형 토기를 쌓아 올려 장식해 보는 등 흥미진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복합문화관의 또 다른 볼거리는 ‘보이는 독널 수장고’다. 대형 독널들이 안전하게 보관된 수장고 내부를 관람 동선에서 직접 확인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어떻게 미래로 전달되는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복합문화관에 새로 조성되는 카페는 신촌리 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을 갖췄다. 나주 들녘의 고즈넉한 풍경과 고분군의 신비함이 조화를 이뤘, 전시 관람 후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쉼터를 선사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이번 준공 이후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관람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시 콘텐츠를 정밀 보완해 3월 초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디지털복합문화관은 어린이들이 소중한 역사를 공부하기 아닌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영암, 농촌 인력난 해소…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월출산·금정 농협 선정

영암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운영 기반이 확대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적 지원과 사업 기획을 적극 추진, 월출산농협과 금정농협이 운영 농협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금정농협은 영암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기존 운영 성과를 인정받

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정농협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270농가에 총 1045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실효성을 입증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인력 배치·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 2026년에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롭게 선정된 월출산농협 역시 영암군의 적극적인 공모 대응과 지역 수요 분석

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군이 건립한 농업근로자 기숙사에 월출산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두 농협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전반을 총괄 지원하고, 인력 수급 조정, 근로환경 개선, 농가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지역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공공

형 계절근로사업은 상시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고령 농가에 꼭 필요한 제도다”며 “연속 선정된 금정농협과 신규 선정된 월출산농협, 농업근로자 기숙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제도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정철원 군수 “소통·협업으로 ‘더 큰 담양’ 건설에 최선”

군, 내년 주요업무보고회

국제명상센터 등 현안 점검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 군이 추진할 핵심 사업으로 호남 상생협력사업인 경마공원 유치,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향촌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철원 군수는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가사천·여사천의 개선복구 사업을 비롯해 담양읍과 고서면 일원의 하수도 정비 및 침수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철원 군수는 “내년은 그간 쌓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해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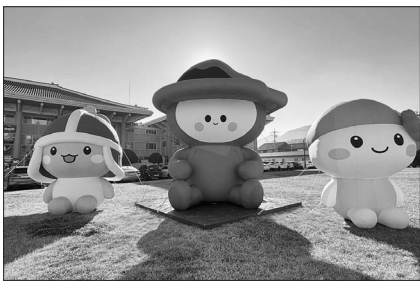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요한 시기다”며 “모든 공직자가 원팀

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 여수,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 설치



시청에 5m 대형 공기 조형물  
시 마스코트 ‘장군이·오동이’도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 본청사 잔디광장에 높이 5m 규모의 대형 공기 조형

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섬박람회 공식 마스코트 ‘다섬이’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청 잔디광장 설치를 시작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도 조형물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섬박람회 홍보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청 잔디광장에

설치된 공기 조형물이 일상에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자연스럽게 섬박람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요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섬박람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시청 본청사 잔디광장에 리뉴얼 마스코트 ‘장군이·오동이’ 공기 조형물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 함평 나비곤충생태관 ‘하얀 겨울 오두막’ 새단장

특색 살린 크리스마스 장식…휴식 가능한 포토존

함평 나비곤충생태관이 겨울을 맞아 포근한 ‘하얀 겨울 오두막’으로 새 단장을 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이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새로운 감성 공간 ‘하얀 겨울 오두막’을 선보인다.

나비곤충생태관은 세계 각국의 나비와 곤충 표본 354종 137점을 보유한 생태 교육 전시관으로, 전시관 중앙의 모뉴먼트 육을 비롯해 나비 인터랙티브 체험, VR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나비곤충생태관의 기존 전시 공간에 겨울 테마 연출을 더해, 관람객들이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관을 새롭게 꾸몄다.

‘하얀 겨울 오두막’은 눈 덮인 숲을 연상시키는 새하얀 트리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겨울 테마 공간으로, 휴식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나비곤충생태관의 특색을 살린 나비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더해져 일반적인 겨울 연출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나비곤충생태관의 특색을 살린 나비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일반적인 겨울 연출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급색·은색, 분홍빛, 푸른빛 나비 장식이 트리와 조화를 이루며 겨울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최윤희 기자 6263739@gwangnam.co.kr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입주작가 창작물 한자리

내년 2월 22일까지 작가 8명 ‘모여 빛은 자리’ 성과전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내년 2월 22일까지 국내외 입주 작가의 창작 결과를 공개하는 2025 입주작가 성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장기 3명, 해외 3명, 단기 입주작가 2명 등 총 8명의 작가가 참여

해 고흥의 흙과 분청 기법을 기반으로 진행한 심도 깊은 연구와 창작 결과물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이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국제적인 창작·연구·교류를 이루는 도에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

와 조선시대 분청사기 원료 복원 연구 성과를 직접 활용, 예술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실험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성과전은 단순한 작품 공개를 넘어, 고흥의 재료, 전통, 환경이 8인의 작가 시각 언어로 ‘변역되는 창작 과정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작가들이 박물관에 기증한 신규 소장 작품 일부를 함께 공개해 국내외 작가와의 교류로 형성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객이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점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영광, RE100 산업단지 조성 준비 ‘순조’

후보지 선정·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

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 RE100 산업단지 후보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RE100 산단 조성 추진에 나섰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과 RE100 정책 동향 분석, 영광군의 혁신성장 경쟁력 분석, 신산업 발굴 방안, 입주 수요조사 계획 수립,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비교·분석 방안 등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과업 수행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RE100 산

단 조성 방안과 단계별 사업화 전략,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운영 계획 등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실과소장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명확한 기본구상 방향 설정과 용수공급 방안, 재생에너지 구입 단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실행 가능한 RE100 산단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 RE100 산업단지 후보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RE100 산단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

심 과제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을 마련해 영광군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